

[토론]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대안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부설 고산퍼머컬처센터장

중첩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대안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부설 고산퍼머컬처센터장

1. 빌트폴츠리트 에너지자립시 사례에 대해

○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농촌의 역할과 에너지자립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발표였음. 단순히 에너지자립을 넘어 ①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② 우리가 배출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방향을 세우고 이를 실현한 점에서 농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음.

○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생산하는 에너지 질에 맞추어 수요를 연결하고 있는 점, 에너지 생산방식과 에너지 저장방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점, 열 수요에 맞추어 열병합발전소의 위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는 점, 자동차 공유와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에도 접근하고 있는 점 등에 있어 농촌의 탄소 중립에 있어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다만 전력 생산에 있어 풍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 우리 농촌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음.

① 빌트폴츠리트의 민관거버넌스 구조, 에너지자립 추진과 관련한 주민참여가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 힘들었던 순간이나 사건

② 프로젝트 시행 전후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 에너지원별 비중 등)와 내부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에너지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

③ 농지에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한다면 농지보전과 에너지 생산 사이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원칙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실 (2020년)

○ 귀농·귀촌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았고 귀농보다는 귀촌을 선호하며 최근 30세 이하의 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음. 귀농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소득이 낮고 지가의 상승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

- 귀촌인 477,122명, 귀농 귀어인 13,537 (귀촌인이 귀농 귀어인의 약 35배)
- 30세 이하의 귀촌인은 전체 귀촌인의 46.9%
- 농업 총수익은 3,600만 원, 농업경영비 2,400만 원, 농업 순소득 1,200만 원
- 5,000만 원 농업 순소득 : 토지에 10억 원을 투자, 주 40시간 이상의 노동

○ 기존 농업인도 경지의 확장을 통해 농업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왔으며 농촌의 소비지출도 점점 늘어나 농가 경제 안정은 어려움에 봉착.

- 2015년 이후 호당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 평균 소비지출은 농촌이 낮으나 4인 농촌 가구 소비지출은 도시에 비해 높음

○ 지난 30년간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농업경영비, 가계소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 농업 순소득, 농가경제잉여의 상승은 물가상승에 비해 작은 수준임. 수입은 늘었으나 물가상승에 비하면 크지 않고 지출도 늘어남.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구조로 전환됨.

○ 현실적인 대안으로 젊은 농가들이 겸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겸업할 수 있는 농촌의 일자리는 많지 않음.

- 1960년 대비 전업농 비율 : 73.2% → 60.0%

- 30대~50대의 전업농과 겸업농 비율 : 35.0% vs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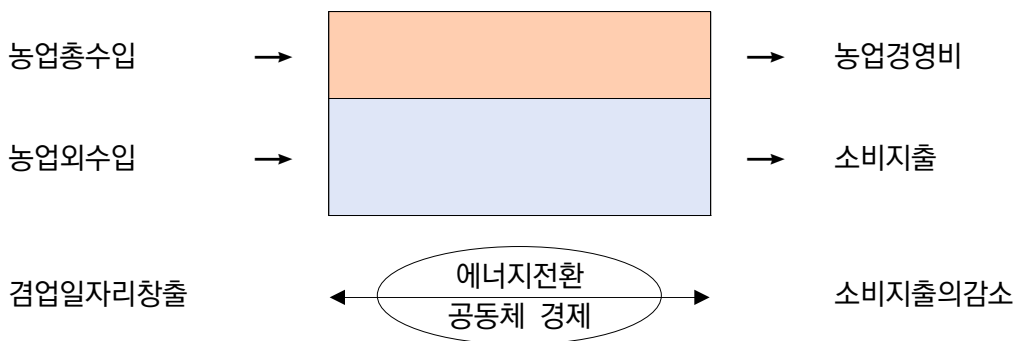
- 인구 천 명당 일자리는 도시(565명) < 농촌(686명), 농촌 일자리에 농업·농림어업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제조업 일자리가 많아 겸업하기 어려움

○ 식량 자급률은 1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2050년에 인구 규모 2,000명 이하의 면이 전체 면 지역의 절반이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는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지역소멸이라는 3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위기는 모두 농업·농촌과 깊게 연계되어 있어 농업·농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장 지혜로운 대안은 공통의 처방을 찾는 것.

3. 중첩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아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적절한 겸업 소득을 만들어주고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면 농가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연결, 농촌에서 농가가 겸업으로 생산한 상품을 다른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의 증대와 가계지출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 A가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역의 다른 주민 B가 생산한 것을 주민 A가 저렴하게 구매

○ 겸업 소득과 지출감소를 연결하는 일은 일반소비재, 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현재 농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대부분은 외부에서 공급되며 토지를 비롯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원도 풍부해 근거리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을 연결해 지역경제가 순환하면 일할 기회가 생기고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음. 겸업을 통해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아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역경제의 순환으로 인구감소를 막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농촌의 에너지자원, 에너지의 질을 고려한 소비, 효율적 저장장치를 조합하는 매트릭스 방식의 지역별 에너지자립 및 전환 계획의 수립

②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 개인적, 시장적 접근을 제한하고 농촌의 공동체를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성화하여 그 수익을 사회서비스와 에너지 전환에 재투자

③ 태양광발전 시설은 공공시설과 도시적 토지이용에 우선 설치하고 농지의 경우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그 허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